나 외에 다른 가치를 네게 두지 말라

(열왕기하 23:1~20)

1.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2.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3.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4.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벧엘로 가져가게 하고
5.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떼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6.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7.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 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나 외에 다른 가치를 네게 두지 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나 외에 다른 가치를 네게 두지 말라’
이 제목은 출애굽기 20장 3절의 십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는 말씀에서 ‘신들’이라는 단어를 ‘가치’라는 단어로 바꾸어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하여 십계명의 제1계명을 기억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십계명 중에 제1계명에 대한 습관적인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막중한 방해를 가져다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자면 신앙 오류의 핵심적인 이유로 보아도 좋

을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는 말씀에서 다른 신들을 이슬람의 알라신이나 힌두교의 시바 신과 같이 다른 종교의 신들로 언 듯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른 종교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제2계명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제1계명을 바른 뜻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가치를 네게 두지 말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다른 가치를 내게 둘 때에 제2계명에서 금하는 우상 숭배나 형상을 만드는 것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결과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때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되고 살인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5:21~22절에서 “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또한 간음이나 도둑질, 거짓말과 이웃의 것을 탐내는 모든 것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결과로서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사실 단 하나의 계명으로 봐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치가 무엇일까요?
가치의 뜻을 모르는 분은 없겠지만 그 뜻을 명확하게 살펴보자면, 첫째로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라고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 지니는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나 자연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나와의 관계에서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사전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치를 정의할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언어로 표현하자면 가치는 내 마음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고,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웃게 하고 나로 하여금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가치를 네게 두지 말라’는 것은 ‘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 하지 말라, 나 외의 다른 것으로 웃으려 하지 말라, 나 외의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생활을 즐겁게 한다, 부부생활을 즐겁게 한다, 학창시절을 즐겁게 보낸다.’라는 말들을 곧잘 쓰고 바람직한 것으로서 여기는데 이것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하는 일이 좋아서 즐거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직장이 나를 웃게 하고 즐겁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을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직장생활을 즐겁게 하지 않아도 될까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의 연장선상에서 직장에서 일도 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이 기쁜 것이 아닙니다. 부부생활에서도 좋은 아내와 남

편을 만난 것이 나를 배부르게 하고 기쁘게 하는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치가 되셔서 즐거운 상태에서 아내를 맞고 남편을 맞이하여 부부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가치가 하나님께 적용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기존의 신학과 신앙에 있어서 큰 허점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에서 나타납니다. 기독교 신학과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창조주이시다, 생사화복과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온갖 속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유일하고 절대적인 가치 되심에 대한 고백의 언급은 빠져있거나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교회를 무력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배부르게 하시고 나를 웃게 하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는 유일한 가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시고 소유되시기 위해서 당신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관과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 당신을 가치의 형태로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 이외의 가치를 마음에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치이신데 하나님 이외의 가치로 웃고 싶고 배부르고 싶고 즐겁고 싶은데 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이 소개되고 있고 이런 식의 신앙이 삶에서 실천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망조라고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선민은 세상의 가치로 여겨지는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을 유일한 가치로서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선택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율법책을 언약의 책이라고 하면서 읽어주고 듣게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 전 지역과 북 왕국 이스라엘에 속했던 벧엘의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산당까지 전 방위적으로 모든 우상숭배를 근절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은 다른 왕 때에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개혁하는 왕들은 우상을 타파하고 아니면 우상을 세우거나 섬겼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체결하고 전 방위적인 우상 훼파의 개혁 운동이 특별한 이유는 남 왕국 유다가 멸망을 확정 받은 상태에서 이전에는 없었을 정도로 철저한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고 발견된 율법책을 언약책으로 부르면서 다시금 언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해야만 한다는 확정적 사실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이 이십삼 년 뒤에는 망하게 됩

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므낫세 왕에 이어서 아몬 왕의 악행이 극에 달하자 유다의 멸망은 확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북 왕국은 진즉에 망했고 이제 남 왕국도 망함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언약이 어떻게 지켜질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답을 요시야를 통해 허락해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책이 발견되고 그것을 근거로 언약이 새롭게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방위적인 우상타파의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요시야의 통치 전체가 하나의 설교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지정학적인 의미에서 나라는 망할지라도 선민의 나라가 어떻게 영속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려는 의도로서 요시야를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언약은 말씀 언(言)에 맺을 약(約)입니다. 언어로 관계를 맺는 것이 언약입니다. 이러한 언약을 체결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백성들이 받아들임으로서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반복해서 선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상실하기까지에 이르렀던 것인데, 새삼스럽게 율법책을 발견하고 언약을 체결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또한 그 뒤에 일어난 종교개혁과 우상타파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요시야의 행동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고 지켜질 수 있습니다. 선민의 나라는 앞으로 지리학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국한된 영역에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를 받아들인 자들에 의해 지속되게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한국 땅에 살고 어떤 분은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어를 받아들임으로서 같은 선민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리적인 영토는 아니지만 여전히 영토의 개념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선민의 나라는 지리적 차원에서의 영토가 아닌 언어의 차원에서 만들어집니다. 남유다가 멸망함으로서 지리적 영토는 없어지겠지만, 선민의 영토는 언어적 영토로서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언약이 기존의 언약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요시야는 선민의 나라가 지리적 영토를 상실했음에도 어떻게 지속될지를 보여주시는 한 편의 설교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요시야 왕 이후에 다른 왕들은 또 다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선민의 나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어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모든 언어의 내용은 판단과 생각과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언어가 활성화 된다는 것은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이 나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인해서 언어가 활성화되느냐는 것인데 내 마음이 붙잡은 가치입니다.

마음으로 가치를 붙잡으면 그때부터 판단이 작용하고 생각하게 되고 말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행동이 나오게 되고 감정과 의지조차도 언어에 의해 장악되게 됩니다.
'돈이 적게 벌리면 안 좋다'라는 언어로 이루어진 판단 체계가 있기 때문에 돈이 안 벌릴 때 슬퍼하는 감정도 생기고, 의지를 발동해서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언어가 가치에 의해서 활성화되고 지배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돈이라면 돈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 판단으로 생각하고, 생각을 통해 말이 나오게 됩니다. 생각 없는 말은 소리일 뿐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언약의 파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인간의 언어와 똑같은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지배하는 특정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쁨과 행복이 되시기 위한 유일한 가치가 되시고, 그 가치에 의해 지배되는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내 마음 속에는 돈 가족 나라 건강 지위 등의 가치가 있다면 서로 다른 가치들이 언어의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에서 붙잡았던 가치를 포기하든지 하나님의 언어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를 받아들이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이미 내 마음속에 다른 가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믿으면 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기가 막히는 궤변이 탄생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치로 하나님의 언어를 재정복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부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가치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갖는 자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리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을 많이 갖는 부자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가치로 붙잡고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갖는 부자를 돈 많은 부자로 바꾸어 버리고 하나님의 언어를 정복해버리는 것입니다.
QT가 위험할 수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유일한 가치로 두고 그 가치를 중심으로 지배되고 정복된 언어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에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어를 재정복하기 때문에 언약은 파기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은 '나 외에 다른 가치를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로 기뻐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고 다른 길을 찾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자기계발 등등의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음으로는 다른 가치를 붙잡고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녀의

형통으로 웃을 준비를 하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를 형통하게 해주시면 웃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가치를 마음이 붙잡으면 그 가치로부터 나의 언어는 지배되고 정복되고,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요시야의 전 방위적인 우상 훼파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던 바알이나 아세라를 제거합니다. 성전 안에 들여놓았던 므낫세의 영성을 제거한 것인데, 밖에 있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가치를 붙잡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고, 설교 강단에 올라 선 이 악한 영성을 제거한 것입니다.
인신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그 중에서 병으로 한 둘 죽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한 명을 몰록 신에게 바쳐서 나머지 자녀들을 무사하게 키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자녀의 형통이라는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는 몰록의 인신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땅의 안정이라는 가치를 붙잡기 위해 일월성신의 방편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가치를 붙잡고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으로서 우상 숭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을 훼파한 요시야 개혁의 의미는 돈을 벌고 싶고 자식의 형통을 이루기 위한 길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선포한 것이고, 세상의 가치를 성취하려는 사람들의 길을 원천봉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생활화를 통해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재현되어야만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가치를 마음에서 붙잡고 그것을 성취함으로서 배부르고 웃고 행복하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길이 원천봉쇄 되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길을 아무리 붙잡아 봐야 이룰 수 없음이 십자가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십자가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라도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기쁘고 만족하고 웃게 하시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가치이십니다. 그 가치를 향하기 위해서 다른 가치를 붙잡는 길을 원천봉쇄한 것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나 외에 다른 가치를 네게 두지 말라'는 이 한 계명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유전 죄로 인해 끊임없이 다른 가치를 붙잡는 마음이 십자가 생활화로 온전한 죽음이 수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